

# 법원, '동방3인-SM' 갈등 타결 권고.. "80만팬 거느린 공인으로서"

양승준 · 입력 2009. 8. 21. 12:25 · 수정 2009. 8. 21. 17:57



▲ 그룹 동방신기

[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] 법원이 전속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시아준수, 영웅재중,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(이하)간의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다.

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박병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 328호에서 열린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1차 심리에서 양 측의 주장을 들은 후 소송을 제기한 동방신기 멤버 측에 "만약 그룹이 해체했을 경우 멤버들간의 신의 문제도 있고 80만 팬을 거느리고 있는 공인으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해 원만하게 타결됐으면 좋겠다"고 말했다.

이어 "조율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"고 양측에 권고했다. 동방신기가 SM 소속 가수를 넘어 '한류그룹'으로서 갖고 있는 위상과 인기를 고려해서다.

한편, 이날 심리에는 동방신기 세 멤버와 SM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, 두 시간 가까이 소송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.

동방신기 세 멤버의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관의 SM과의 전속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계약 수정을 원하는 것이냐고 묻자 "SM이 멤버들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려고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"이라며 "멤버들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회사라면 누구라도 환영한다. 여러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다"고 말했다.

하지만 SM 측은 "이번 소송을 통해 세 멤버들과의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관계를 돈독히해 제2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스타와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고 싶다"며 "신청인들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미국 할리우드 진출까지 노리는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"는 입장을 밝혔다.

## ▶ 관련기사 ◀

[☞ 법원이 제기한 '동방3인-SM' 갈등 의문 5가지](#)

[☞ 동방 3인 "소속사 이전 고려" vs SM "동반자로 함께 성장했으면"](#)

[☞ SM, "시아준수, 소송 보름 전 4500만원 가불...이해 불가"](#)

[☞ 유진, "동방신기·SM 계약갈등 안타까워"](#)

[☞ 동방신기 팬들, 법원에 'SM 소송' 12만명 서명 탄원서 제출](#)

< ©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포털 이데일리 SPN - 무단전재 & 재배포 금지 >  
이데일리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